


[제2018-6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 7.31(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ARI Project <판소리 전통과 현대>개최



-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판소리 전통과 현대” (Pansori Yesterday and Today)
 - ▶ 일 시 : 2018.8.8(수)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우리소리,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열번째 무대로 우리소리(대표 김원일)을 선정하여 “판소리 전통과 현대 (Pansori Yesterday and Today)” 공연을 8.8(수)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판소리 전통과 현대’ (Pansori Yesterday and Today) 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에는 판소리 명인 조통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과 황승옥(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윤미, 정다운, 유휘찬 등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회원들과 한국전통 국악을 현지 주류사회에 알려온 김원일(우리소리 대표) 및 우리소리 단원, 고수희무용단 등 한국과 미주지역 국악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공연에서는 국악가요 '꽃타령', '꿈을 향해'를 시작으로 퓨전가요 '아름다운 나라', 가야금병창 '사랑가', 창작 퓨전판소리 '슈퍼덱 씨름대회출정기', 한국무용 '교방축원무', 판소리 '흥보가', 민요 '아리랑', '괘지나칭칭 나네', 판소리 이야기 '미산 박초월', 민요 '육자배기', '자진육자잡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 타령' 등 등 판소리와 민요 등을 중심으로 한 여름의 열기를 한의 소리의 열기로 바꾸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명인 조통달 명창이 진행할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에서는 조통달 명창의 스승이신 미산 (故)박초월 선생의 생전 공연영상 상영, 판소리 ‘수궁가’ 열창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대담 등이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을 기획한 김원일 대표는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 뿐만 아니라 남도민요, 국악가요, 퓨전가요, 창작퓨전 판소리 등을 다양하게 공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 판소리의 전통부터 현대의 소리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 국악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무대라서 더욱 뜻 깊고,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찾아주셔서 우리소리의 멋과 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소리 전통과 현대 (프로그램)

1. 국악가요 '꽃타령', '꿈을 향해'

김수진, 황정인, 이환

2. 퓨전 가요 '아름다운 나라'

윤미

3. 가야금병창 '사랑가'

황승옥

4. 창작 퓨전 판소리 '슈퍼덕 씨름대회출정기'

정다운, 고수: 유휘찬

5. 무용 '교방 축원무'

고수희 무용단

6. 판소리 '흥보가'

유휘찬

7. 민요 '아리랑', '괘지나칭칭 나네'

윤미, 정다운

8. 판소리 이야기 '미산 박초월'

조통달

a. 미산 박초월 선생님 생전 공연 영상

b. 판소리 '수궁가'

c. 대담

9. 민요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고리 타령'

우리소리

10. 민요 '진도아리랑'

다같이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끝/



<공연단 소개>

우리소리

우리소리는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남가주에 2010년에 설립되어 매년 정기공연을 9회째 해오고 있는 판소리 단체이다. 강사 김원일은 본국의 판소리 전수조교 조통달 명창을 사사하여 미산제 홍보가를 미주 최초로 완창하고 현재 수궁가 완창을 준비중이다. 우리소리는 매년 남도민요 무료강좌를 현재 7회째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까지 약 300여명이 강좌를 거쳐갔다. 현재 약 20여명이 5년여 동안 땀 흘리며 판소리를 연마하고 있다. 이제 우리소리는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미주류사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영어권을 위한 판소리 번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세종전통예술진흥회는 21세기에 우리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창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사단법인이다. 본 사단법인은 상실되어가는 전통예술의 맥을 잇고 전통예술의 핵심을 문화예술 교육으로 승화시키며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인을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삶속에 직접적으로 함께 느끼고 체험하며, 마음의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음악의 자장 큰 매력이자 힘이 아닐까 한다.